



### 나의 리스트



국민학교 시절 일기장 한편에 싫어하는 아이들 이름을 적었다. 블랙리스트, 데스노트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일기장 검사를 하는 선생님께서 봐주시길 원했던 것 같다.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고자질하는 차원이었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더 많이 적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등등 내 일기장에는 다양한 리스트들이 존재했다.

좋아하는 노래들을 테이프, CD, MP3, 아이팟, 유튜브, 애플뮤직 플레이리스트에 모아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 이 노래 좋아. 이 노래도 빠지면 안 되지. 이걸 아침에 커피 한 잔 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잖아? 이걸 내가 사랑에 아파할 때 들으며 눈물 흘렸던 곡이네. 이걸 차 안에서 들으면 좋은 곡이지. 오, 이걸 청소할 때, 이걸 손님 왔을 때' 이렇게 혼자 신이 나서 좋아하는 노래들을 모아놓으면 부자가 된 것처럼 마음이 풍요로웠다.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이 최고의 놀이였던 시절엔 노래방에서 부를 노래 목록을 수첩에 적어놓고 다녔다. 분위기 띄울 때 부르는 노래, 컨디션 좋을 때 부르는 노래, 조용히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등등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노래방에서 내 차례가 왔을 때 부를 노래가 생각나지 않으면 수첩을 들쳐보곤 했었다.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된 이후에는 더 많은 리스트들이 생겨났다. 아이들 준비물, 아이들 스케줄, 각

종 이벤트 등 리스트가 넘쳐났다. 그중 내가 가장 공들인 리스트가 있었는데 일종의 우리 가족 블루프린트 같은 것이었다. 2010, 2011, 2012 이렇게 연도를 짚 적고 그 밑에 아이들의 나이와 내 나이를 적고 큼직큼직한 계획들을 적어 넣었다. 아이들의 초중고 입학과 졸업,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부모님 환갑, 칠순, 팔순, 막내가 대학 갈 때 내 나이를 보며 흠칫 놀라기도 했다. 할 일 없고 심심할 때 이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우리에게 펼쳐질 인생이 기대되어 마음이 설렘.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 그 리스트들을 정리해 보자.

1. 어릴 적 일기장 데스노트 속 친구들을 왜 싫어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들 잘 살고 있겠지.
2.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로만 만들어진 플레이리스트도 가끔은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좋아하는 노래라고 언제든지 반가운 것은 아니다. 반면 가끔씩 정말 싫어했던 노래가 동네 호프집에서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정겹고 듣기 좋을 때도 있다.
3. 한창때 즐겨 부르던 노래방 18번들은 이젠 절대 부르지 않는 곡들이 되어버렸다. 이런 노래를 전에는 대체 어떻게 불렀지? 이젠 고음이 안 올라가고 숨이 차서 못 부르는 노래들이 수두룩하다. 마지막으로 목청 높여 노래를 열창했던 것이 언제였던가? 최근에는 노래 자체를 거의 잘 부르지 않게 된 것 같다.
4. 우리 집 블루프린트는 다시 열어보지 못했다.

열세 살에 멈춰버린 첫째가 빠진 블루프린트를 들여다볼 용기가 아직은 나지 않는다.

삼 년 전 아들이 하늘로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좋아했던 것들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세월에는 장사 없다고 내 기억이 언제까지 버티줄지 자신이 없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도 오래오래 기억해주고 싶었다. 포켓몬카드, 베이 블레이드, 레고, 돌, 조개, 별자리, 모래사장, 해물 많은 짬뽕, 치즈피자, 갈비탕 당면, 야채 뽕 데리버거, 포카리스웨이트, 맥앤치즈, 치즈 파스타, 아차산 할아버지 순두부, 된장찌개에 들어간 감자와 두부, 게임, 유튜브, 틱톡, 영상편집... 나열하다가 웬지 서글퍼지기도 했다. 분명 이것보다 많을 텐데... 내가 모르는 것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표현하지 못한 것도 숨겨둔 것들도 있었을 텐데... 아들의 Favorite 최애 목록은 나의 눈물 리스트가 되어버렸다.

리스트 하는 것을 좋아하던 나는 오늘도 뜬금 없이 이런 걸 리스트하고 있다. 아마도 살아있는 동안은 꼭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아이비만의 노하우를 경험 하세요! 실적이 증명합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                              |   |
|------------------------------|---|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pay when close escrow) |

(\* for regular commission listing only some terms and condition will applied)

\*\*\* 시니어 스페셜 \*\*\*

은퇴후 여유로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새로 나온 리버스 모기지 플랜으로 여유 자금/현금 챙기시고 남은 기간 집페이먼트 없이 다운 사이즈 하세요~ 지금 상담 하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일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